Weekly
FX Economist View

2026-05-18

이토록 친밀한 중재자?

FX Talk & Insight : 금주 1,480~1,510원 전망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은 없었고,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 이란 문제에 합의했다는 표현은 백악관의 발표일 뿐, 중국은 의견이 다름을 표명. 미국이 건넨 MOU(양해각서)를 이란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전쟁 종식 기대에 찬물 끼얹은 가운데, UAE 인근 해역에서의 상선 나포 소식 등 호르무즈 문제는 공전. 냉정한 중동의 현실을 반영하며 달러화가 재상승한 가운데, 미국이 합의 없는 종전 선언 등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돌파구 모색하겠지만 중국 조력 없이 쉬운 출구 아닐 듯

중동 전쟁으로 미뤘던 미중 정상회담이 북경에서 열렸다. 서로 속마음을 숨기며 시진핑은 트럼프의 방문을 환대하였고 트럼프는 중국을 아름다운 나라라고 치켜세우는 등 마치 예전부터 친밀한 관계 같이 느껴진다. 하지만 되돌아 보면 기술 주도권, 관세 인상, 대만 문제 등 갖은 영역에서 부딪히며 서로 으르렁거렸던 만큼, 트럼프와 시진핑이 나눈 환한 웃음을 시장이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관세와 시장개방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야 했겠지만, 중동 전쟁으로 서로간의 위치가 바뀐 듯한 인상도 지울 수 없다. 결국 서로간의 필요성이 그 만큼 절실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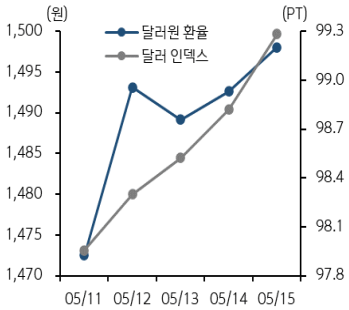
미중 정상간 긴밀하게 나눈 대화가 다 공개될 리는 만무하지만, 관세는 명분일 뿐 중동 사태의 해결 방안이 꽤나 진지하게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비록 트럼프는 태연한 척 하지만 호르무즈의 문이 닫히며 국제유가가 치솟자 미국도 물가가 오르며 경제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지난 트럼프 1기에 구겨진 체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이다. 일대일로를 통해 무역을 다각화하며 미국의 관세 인상을 흡수했고 희토류로 오히려 맞대응하며 이제 트럼프가 만만하게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실제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트럼프 취임 이후 중국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미국을 소폭이나마 앞서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실제 무력으로 행동하기 보다는 서로를 공격하는 말 풍선만 커지고 있어 양쪽 모두 내심 확전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는 읽힐 수 있다. 만일 트럼프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시진핑이 이란을 본격적으로 설득하며 중재에 나선다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은 보다 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과거 전쟁의 역사에서도 신뢰할 만한 중재자가 나설 경우 협상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통상 UN이 중재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트럼프가 UN을 못마땅해 하고, 원유와 일대일로 등으로 이란과 이해관계가 깊게 얽혀있어 중국이 중재에 나선다면 무게감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시진핑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며 빈손으로 귀국하더라도 트럼프도 자기가 해결했다고 떠들면 그만이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자의 주판알을 튕길 것이기에 갑작스레 종전으로 향해간다고 기대하기는 이르다. 다만 중국의 개입 여부에 따라 긴장감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 만큼 이란과 중국의 행보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시장이 중동 전쟁에 조금씩 둔감해지며 자산별로 행보가 확연히 달라지는 인상을 주고 있다. 주식은 전쟁 리스크와 한 걸음 거리를 두고 AI의 성장과 실적에 포커스를 맞추며 과열되고 있다. 반면 채권시장은 전쟁 후유증으로 인한 물가와 재정 지출이 드라이버가 되며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다.

사실 과거에도 전쟁 기간 동안 미국 역시 꽤나 높은 수준의 물가를 맞이 했었고, 재정 지출이 커지는 것도 너무 자명하다. 그렇다면 포스트 중동 전쟁의 변수는 결국 중앙은행과 재정 안정성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연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성장 우위를 바탕으로 영국, 일본, 유로존보다 재정 여건이 그나마 낫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결국 엇갈리는 주식과 채권의 행보 아래 환율은 각국의 정책 향방에 초점을 맞춰 자금 흐름에 따라 결정될 듯하다.

외환시장



전망치	금주 예상 레인지	
	저점	고점
달러원	1480	1510
달러엔	157.5	159.5
유로달러	1.160	1.175

Economist 소재용
jyso@shinhan.com
02-2151-2638

Economist 백석현
seokhyun100@shinhan.com
02-215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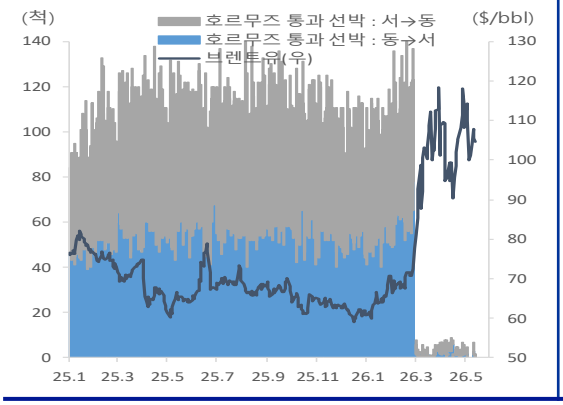
Weekly
FX Economist View
이토록 친밀한 중재자?

그림으로 해석하는 매크로 관전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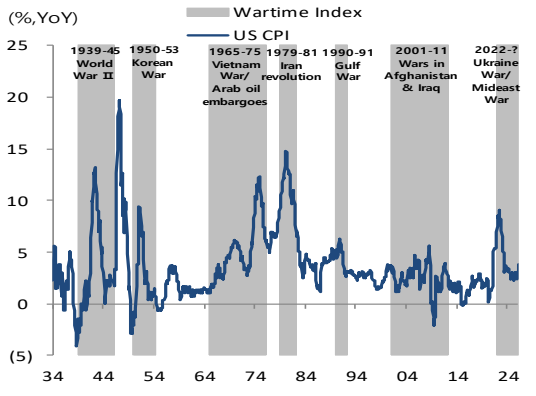
일부 선박이 이란의 눈을 피해 통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극소수. 미중 정상회담에도 불구 호르무즈 봉쇄 이어지며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유지

미국 CPI 3.8% 상승한 가운데 PPI는 6.0% 급등하며 인플레 우려 노출. 과거에도 전쟁기간 동안 통상적으로 높은 미국 물가 수준 기록

소수의 선박 통과했지만 막혀있는 호르무즈



과거에도 전쟁기간에 물가는 높은 수준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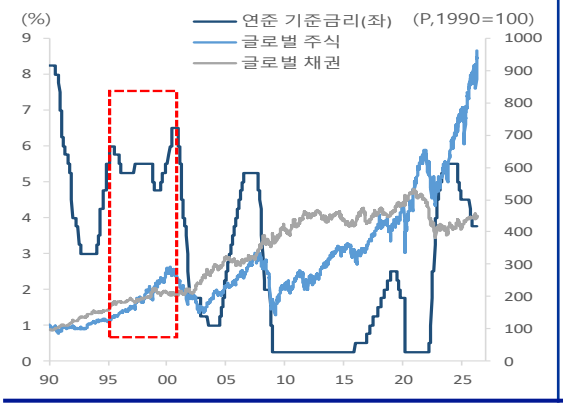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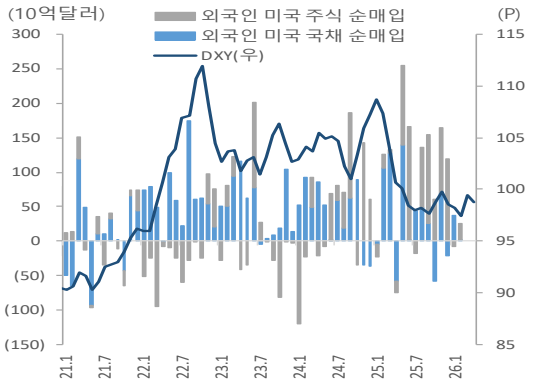
중동 전쟁에 대한 민감도 다소 떨어진 가운데 주식과 채권은 다른 변수가 주도. AI발 성장을 반영한 주식과 물가 및 재정 반영한 채권간 괴리

외환시장은 주식과 채권의 이격 아래 자산간 자금이동에 따라 좌우될 듯. 시차 발생하지만 중동 전쟁 발발한 3월 이후 미국 펀드플로 주시

IT붐 시기처럼 채권과 주식의 이격 확대



중동 전쟁 이후 미국 자금 흐름 확인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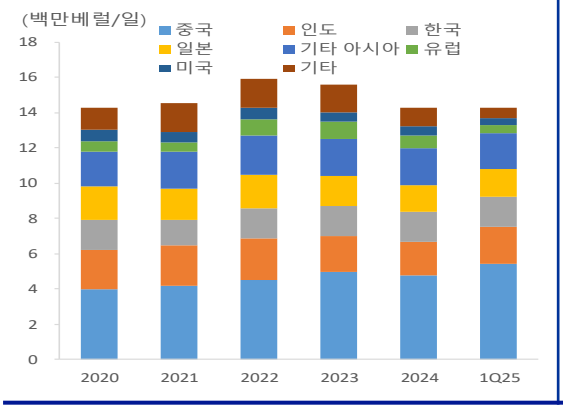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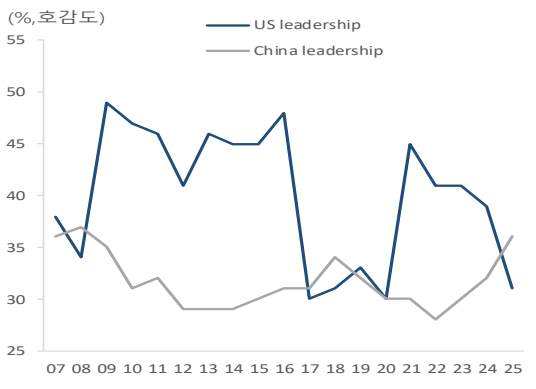
미중 정상회담으로 시진핑의 존재감은 더 커질 듯. 경제 및 정치적 이해관계 감안시 중국이 적극 중재 나설 경우 이란의 변화 가능성 배제 못해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헤게모니 경쟁 관계라는 사실도 불변해 중국-이란의 행보는 확인해야 할 변수. 트럼프 취임으로 리더십 우위 변화

중국의 중재시 무게감 틀려지는 중동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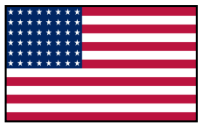
세계 리더십 평가에 트럼프보다 앞선 시진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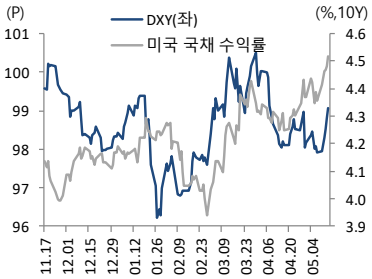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Refinitiv, 신한은행 S&T 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이토록 친밀한 중재자?

FX Naviga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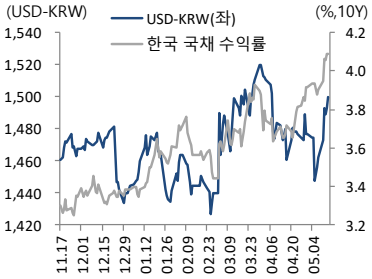


DXY(미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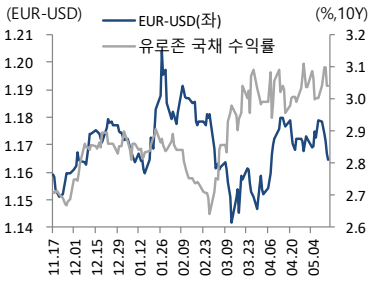
리뷰	CPI/PPI 오름세로 국제유가 상승의 인플레 전가 확인된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인 워시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노출. AI발 증시 호조 아래 시장금리 오름세 지속. 미중간 정상회담에서 가시적 무역 성과 없고 중동 사태의 뚜렷한 해법 없어 달러 상승
프리뷰	정상 회담 이후 중국과 이란간 움직임에 따라 중동 상황 변모할 가능성. 중국 역시 중재 필요성 크나 관련국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 트럼프의 일방적 종전 선언도 가능하나 호르무즈 개방 없다면 실망감 커질 소지

USD-KRW(한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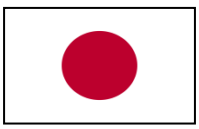


리뷰	지난 주 미국이 건넨 MOU(양해각서)를 이란이 사실상 거부하며 합의 기대에 찬물 끼얹고 美 대통령이 실망감 표출하면서 주초부터 환율이 강하게 상승. 13일 1,499.9원까지 상승한 뒤, 미·중 정상회담 소화하며 소폭 후퇴
프리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은 없었고, 이란 문제도 눈에 보이는 성과 없었음. 전쟁 종식에 마음 급한 트럼프와 달리 중국은 의견이 다름을 표명. 이제 남은 것은 합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 종전 선언일 수 있고, 환율은 현실을 반영하며 추가 상승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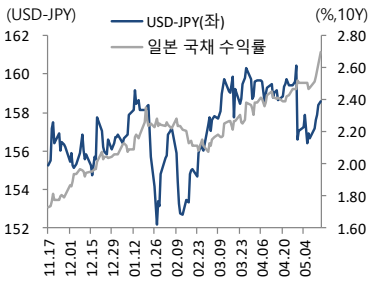
EUR-USD(유로화)



리뷰	ECB 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의견을 표출한 가운데 신중론도 일부 확인. 이와 무관하게 미국과 이란의 종전을 기대한 낙관론이 후퇴하며 이번 주 유로화가 일방적으로 하락. 주 후반에는 1.17 하향 돌파
프리뷰	미·중 정상회담은 이란 전쟁을 끝내는 데 소득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럽의 인플레이션 부담도 증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결국 이란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증가하는 가운데, 고유가 장기화 우려 속에 유로화도 다소 눌릴 듯



USD-JPY(일본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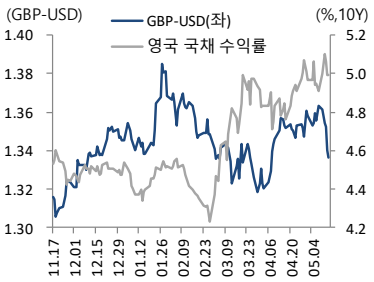
리뷰	이번 주에는 일본 당국의 추가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에 방문하고 일본 재무상이 미국과 외환시장 관련해 공조한다고 밝히면서 엔화 약세에 경계감 표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는 약세 추세 유지하며 환율 158엔 상향 돌파
프리뷰	일본 3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넘보고 BOJ 6월 금리 인상 기대가 높지만 금리 상승이 엔화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1년간 지속. 개입이 없었다면 160엔을 넘었어야 할 여건이며, 개입은 속도를 늦출 뿐이기에 160엔은 시간 문제라는 판단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이토록 친밀한 중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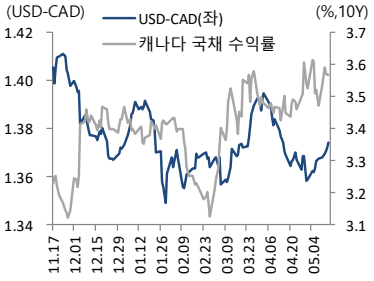
FX Navigator

GBP-USD(영국 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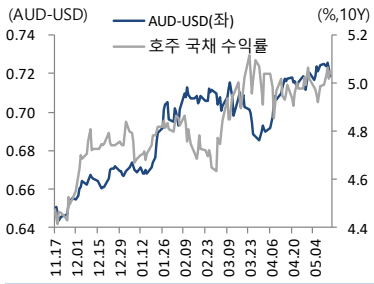
리뷰	영국 노동당이 5월 7일 영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스타머 총리가 사퇴 압력에 시달리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달러 강세 더해지면서 GBP가 1.34 하향 돌파. 특히 주 후반에는 유로화 대비로도 급락하면서 영국의 정치적 위기에 민감하게 반응
프리뷰	이번 지방선거 참패를 계기로 영국 노동당의 잠룡들이 꿈틀. 대외적으로 중동 전쟁과 고유가 속에 유력 주자에 따라 영국채 및 GBP 추가 약세 여지 존재. 이란 전쟁 종식 기대한 낙관론도 후퇴하며 대외적 여건도 하락 압력을 가중

USD-CAD(캐나다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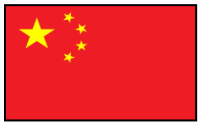


리뷰	가파르지는 않았지만 CAD 환율이 일방적으로 상승하면서 1.37 상향 돌파. 미국과 이란 전쟁 종식 기대에 이란이 찬물을 끼얹으며 시장이 현실을 재평가하는 과정에 USD 강세 연출. 최근 미국과 캐나다의 국채 금리차가 벌어지는 것도 환율 상승에 기여
프리뷰	7월 USMCA 재검토를 앞두고 미국이 캐나다에 강한 압박을 가하는 중. 관세 위협과 협정 재협상 요구하며 캐나다의 양보를 촉구. 한편,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 반영하며 미국채 금리 상승세가 캐나다를 압도하고 있어 환율 추가 상승 여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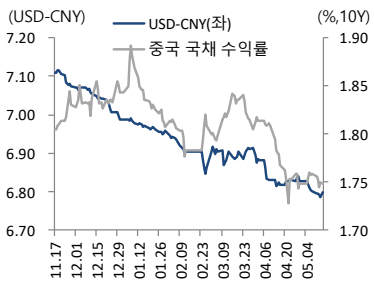
AUD-USD(호주 달러)



리뷰	한 주간 USD 강세가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AUD는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 하락 제한되며 주 후반에도 0.72 위에서 버텼음. 대외적으로는 UAE 인근 해역에서의 상선 나포 소식 등 호르무즈 긴장과 미·중 정상회담 소화하며 USD 강세였음
프리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은 없었고, 이란 문제도 눈에 보이는 성과 없었음. 전쟁 종식에 마음 급한 트럼프와 달리 중국은 의견이 다름을 표명. 합의 없는 미국의 일방적 종전 선언이 향후 수순일 수 있음. 향후 수요 파괴 가능성 감안하면, AUD 추가 상승은 버거울 소지



USD-CNY(중국 위안)



리뷰	5월 초부터 위안화가 일방적 강세 흐름 지속한 가운데, 미·중 정상회담 가까워지자 강세 속도가 점차 완만해졌지만 역외 CNH 환율은 6.79 하향 돌파. 다만, 정상회담 이틀째인 15일에는 오랜만에 반등하며 6.79를 회복
프리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타협은 없었고, 이란 문제도 마찬가지. 이란 문제에 뜻을 함께 했다는 표현은 미국의 발표일 뿐, 중국은 의견이 다름을 표명. 위안화 강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나, 일방적이고 가파른 강세가 되지 않도록 당국의 미세 조정은 가능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Weekly
FX Economist View
이토록 친밀한 중재자?

금주 발표되는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이벤트	기간	예상치	이전치	중요도
5-18-2026 11:00	CH	소매판매 YoY	Apr	2.00%	1.70%	85
5-18-2026 11:00	CH	광공업생산 YoY	Apr	6.00%	5.70%	88
5-18-2026 11:00	CH	고정자산(농촌제외) YTD YoY	Apr	1.70%	1.70%	60
5-18-2026 23:00	US	NAHB 주택시장지수	May	34	34	52
5-19-2026 5:00	US	순장기TIC흐름	Mar	--	$58.6b	73
5-19-2026 8:50	JN	GDP SA (전기대비)	1Q P	0.40%	0.30%	96
5-19-2026 15:00	UK	ILO 실업률 3개월	Mar	--	4.90%	90
5-19-2026 21:30	CA	CPI (전년대비)	Apr	2.90%	2.40%	95
5-20-2026 10:00	CH	1년 대출 프라임 금리	20-May	3.00%	3.00%	52
5-20-2026 15:00	UK	CPI (전년대비)	Apr	--	3.30%	98
5-21-2026 3:00	US	FOMC 회의록	29-Apr	--	--	60
5-21-2026 6:00	SK	PPI 전년비	Apr	--	4.10%	66
5-21-2026 8:50	JN	무역수지	Apr	-¥69.2b	¥667.0b	68
5-21-2026 9:30	JN	S&P 글로벌 일본 PMI 제조업	May P	--	55.1	90
5-21-2026 10:30	AU	실업률	Apr	4.30%	4.30%	97
5-21-2026 17:00	EC	S&P 글로벌 유로존 제조업 PMI	May P	--	52.2	90
5-21-2026 17:30	UK	S&P 글로벌 영국 제조업 PMI	May P	--	53.7	90
5-21-2026 21:30	US	주택착공건수	Apr	1420k	1502k	89
5-21-2026 21:30	US	건축허가	Apr P	1385k	1363k	62
5-21-2026 22:45	US	S&P 글로벌 미국 제조업 PMI	May P	--	54.5	90
5-21-2026 23:00	EC	소비자기대지수	May P	--	-20.6	67
5-22-2026 6:00	SK	소비자심리지수	May	--	99.2	61
5-22-2026 8:30	JN	전국 CPI (전년대비)	Apr	1.70%	1.50%	93
5-22-2026 17:00	GE	IFO 기업환경	May	--	84.4	98

자료 : Bloomberg, 신한은행 S&T센터
주 : 날짜 및 시간은 한국 기준/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중요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중요한 지표로 평가
US(미국), EC(유로존), UK(영국), GE(독일), JN(일본), CH(중국), CA(캐나다), AU(호주), SK(대한민국)

서울 외환시장

(단위 : 원)

구분	달러/원	위안/원
시가	1,494.2	220.1
고가	1,507.7	221.4
저가	1,493.5	220.1
종가[1)]	1,500.8	220.6
전일비	9.8	0.8
평균환율	1,499.8	220.5
NDF(1M)	1,496.9	
거래량	214(억불)	229(억위안)

1) 서울외환시장 3시 30분 종가

주요 통화 환율

통화	환율	전일비
USD/KRW	1,498.05	8.90
JPY/KRW	943.59	0.32
EUR/KRW	1,741.72	-2.59
GBP/KRW	1,995.59	-4.12
AUD/KRW	1,070.51	-6.87
CAD/KRW	1,089.19	1.24
USD/JPY	158.74	0.37
EUR/USD	1.1625	-0.0044

금리 장외파생상품 (원화)

(단위 : %)

만기	IRS	전일비	CRS[2)]	전일비
1Y	3.330	0.053	2.870	0.05
2Y	3.711	0.056	3.155	0.06
3Y	3.856	0.081	3.300	0.09
4Y	3.920	0.087	3.365	0.09
5Y	3.975	0.098	3.420	0.10
7Y	4.025	0.104	3.375	0.08
10Y	4.064	0.106	3.235	0.04

2) 3개월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3개월물과 교환되는 원화 고정금리

기준 금리 및 채권금리 (원화)

구분	종가	전일비
CD 91일물	2.81	0.00
통안 1년	2.18	+0.03
통안 2년	3.63	+0.09
국고채 3년	3.77	+0.11
국고채 5년	4.01	+0.12
국고채 10년	4.22	+0.13
국고채선물(3년)	103.06	-0.07

단기 FX Swap Point (원화)

(단위 : 전)

만기	SWAP Point	전일비	Implied CRS
1M	-125	-20.00	2.65%
3M	-355	0.00	2.69%
6M	-760	-20.00	2.72%
1Y	-1,400	20.00	2.92%

금리 장외파생상품 (미국)

(단위 : %)

만기	국채	전일비	IRS[3)]	전일비
1Y	3.81	0.027	3.83	0.038
2Y	4.07	0.090	3.92	0.093
3Y	4.14	0.118	3.93	0.118
5Y	4.26	0.141	3.97	0.136
10Y	4.59	0.125	4.16	0.118

3) 1년 주기로 무위험지표 복리평균금리(Compounded SOFR) 1년물과 교환되는 달러 고정금리

주요 증시

증시	종가	전일비	
KOSPI	7,493.18	-488.23	-6.12%
미국 DOW	49,526.17	-537.29	-1.07%
중국 상해종합	4,135.39	-42.53	-1.02%
일본 NIKKEI 225	61,409.29	-1,244.76	-1.99%
영국 FTSE 100	10,195.37	-177.56	-1.71%

기타

종목	종가	전일비
WTI (선물)	105.42	+4.25
금 (선물)	4,561.90	-123.40
3M TERM SOFR	3.64	-0.01
3M EURIBOR	2.23	-0.01
KOR 5Y CDS	23.87	+0.01

· 본 자료는 자료 제공일 현재 시점에서의 의견 및 추정치로서 실적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고객의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매매는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행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어떠한 경우에도 당행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재배포 될 수 없습니다.